

Ayo Adewuya 박사 , 고린도후서, 3차 세션, 고린도후서 2장, 바울의 변호

© 2024 Ayo Adewuya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아요 아데

우야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고린도후서 2장, 바울의 변호입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규율 또는 학대? 오늘날 우리는 규율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규율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살을 찌푸리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고, 항상 구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어떤 규율이 학대에 가깝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규율은 교회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핵심적인 것 중 하나이며 목사-회중 관계에서 핵심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규율이 없는 곳에서는 일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은 고린도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조르주 책의 마지막과 같습니다.

교회를 징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바울의 마음 속에는 너무나 많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부터 시작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을 살펴보고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고통스러운 방문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하리요 내가 근심하게 한 자 외에 누가 있겠는가?내가 이렇게 쓴 것은 내가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자들에게서 근심하지 않기 위함ियो, 나는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많은 근심과 마음의 괴로움과 많은 눈물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노라.

이제 이것을 맥락에 맞게 설명하자면,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인들 사이에 관계가 깨진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제 중 하나는 바울이 그들을 방문하려다가 중단된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된 여정과 실제 여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그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사람들과 자신에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는 소위 고통스러운 방문 이후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고통스러운 방문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방문했지만, 그 방문은 잘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획 변경을 계속 변호하고, 의도한 대로 그들에게 오지 않은 또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2절에서 우리는 고린도인들이 여전히 반항적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문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은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실제로 악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글썄, 기다리게 하세요. 가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가 그들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 속에서 다시 오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를 기쁘게 하는 친구들에게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역동성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제 말은, 요한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말할 때의 말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당신은 이끌고, 번창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 기쁨을 얻습니다. 그들이 슬퍼한다면, 누가 바울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기쁨은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그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전의 편지입니다. 이제, 이것은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5-9장에 언급된 편지도 아닙니다. 다른 편지, 많은 슬픔과 마음의 괴로움과 많은 눈물을 담은 또 다른 슬픈 편지, 눈물의 편지입니다. 한 가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모든 면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 대한 사랑에서 동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째,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친구와 마주해야 할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해 그들과 마주할 때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내가 가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면 너희가 슬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 당신과 마주해야 했을 것이고,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봅니다. 대립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 말은, 우리는 대립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대립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하는 의미에서 대립적이진 않지만, 대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립이라는 단어는

거의 부정적 경멸을 가지고 있어서 대립은 싸움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물을 앞으로 가져와서, 야, 봐, 이걸 봐. 우리에게는 쉽게 다가와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전혀 즐거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한다면, 우리의 눈은 적어도 동정의 눈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기 풀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많은 눈물을 흘리며 당신에게 편지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젊은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 말은, 공감의 눈물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베일이나 악을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를 상처입히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하지만 상처를 입힌 친구도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즐거움을 위해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예술에 대한 많은 고민과 괴로움으로 당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 말은, 많은 고통 속에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많은 고통, 많은 눈물 속에서 마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 말은, 바울의 언어는 매우 강력하고 매우 생생하며, 많은 눈물, 많은 고통, 많은 고난,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4절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그리고 나서, 내 말은, 그것이 바로 심장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합니다. 바로 심장에 있습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마치 심장에 단검이 꽂힌 것 같지만, 해야 합니다. 그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서 그들을 다시 방문하지 않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인정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편지가 괴로움에서 생겨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절까지 1절이 그 편지라고 제안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슬픈 편지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착하면 다시 다룰 것입니다.

이런 보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만,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 하지만 6장에 대한 다음 영상을 볼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자. 거기에 더 많은 답변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자. 하지만 고린도후서 2장에서 뭔가가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이 구절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범죄자의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고통을 주었다면 그것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과장하지 않고 말하자면, 여러분 모두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다수에 의한 이 처벌이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제 대신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가 과도한 슬픔에 압도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 그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용서하는 자를 나도 용서하노라 내가 용서한 것은 내가 용서하노라 내가 용서한 것이면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계획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앞 구절에서 바울은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일으키고, 더 이상의 고통을 피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이 구절에서 반복됩니다. 특정한 범인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목사로서의 바울의 예민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급해야 합니다. 목사로서의 바울의 예민함.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민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적 징계가 단순히 보복적인 것이 아니라 시정적인 것임을 인식합니다. 기독교적 징계는 보복적인 것이 아니라 시정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징계와 처벌을 빠르게 구별해야 합니다.

처벌은 구원이 아니다. 규율은 구원이 된다. 처벌은 처벌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게 전부의 끝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들을 처벌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율은 구원적입니다.

discipulus 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여기서 규율이 유래합니다 . 규율이 유래합니다. 규율의 목적은 사람이, 어쩌면 학생이, 배우고 우리의 감각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바울의 예민함을 보셨군요. 첫째, 잠깐만요. 바울이 범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걸 보셨나요? 언급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는 그 범인을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은 그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글썄, 그들은 그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쎄요, 그들 중 일부는 아마 그를 모를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높은 목표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 범죄자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들은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바울의 사역에서 목회적 민감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감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여전히 회중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회중의 일원이 될 것이라면, 그를 징계하는 것조차도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아십니까? 바울은 회개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감정과 심리적 필요를 분명히 이해합니다.

6절에서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다수에 의한 이 처벌이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제 대신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가 슬픔에 압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이 그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기를 촉구합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교회에는 회복의 사역이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아니 제가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다면, 사람들을 징계하고, 우리는 그냥 그들을 내던져버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들을 내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 그분이 겪으신 고통, 그분이 겪으신 고뇌, 그리고 그분이 이 한 사람이 그분에게 오도록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조차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의 감정과 회개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심리적 필요를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고린도인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자신의 행동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는 공동체 내에서 사탄의 분열적 활동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이점을 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기되어 온 주요 질문 중 하나는 이 범인은 누구인가? 범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가능한 한, 저는 그것에 대해 오래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논쟁된 것 중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노년 평론가들은 이 사람이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말은,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2장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바울의 고통스러운 방문 이후, 바울이나 그의 대리인 중 한 명에 대한 어떤 종류의 모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입니다.

근친상간 측면에서 이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어쩌면 누군가가 징계를 받았을 때, 그리고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을 때입니다. 바울은 너무 가혹했고, 그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반항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 안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할 만한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바울의 고통스러운 방문 이후에 고린도를 방문한 사람이든 고린도 사람이든 바울이나 그의 대리인 중 한 명을 향해 모욕이나 어떤 묘사가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CK Barrett이 그의 책에서 한 주장과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반대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반대자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행한 사건으로 인한 슬픔을 무시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의향이 있다면 당신도 기꺼이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분명히 이건 근친상간이나 그에 가까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를 돌립니다. 그는 회중에서 듣고 바울에게 슬픔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확장해서 전체 회중에게 슬픔을 불러일으킨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이것입니다. 범죄의 본질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범죄, 범죄의 유형은 맥락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회복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회복으로서의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복으로서의 거룩함. 고린도후서를 보면 화해와 회복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두 단어 정의를 해달라고 하면, 이건 저뿐인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회복된 관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회복된 관계.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죠 .

관계는 깨졌고, 신은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왔을까요?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회복된 관계.

그래서 기독교는 그저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예리코 길 에서, 그저 두 사람만 있을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저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저만 있다면, 저는 당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리코로 가는 길은 공평하지 않고, 두 명 이상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독교적 경험, 구원, 그리고 성화와 같은 기독교적 경험은 확실히 개인적이지만,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맥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공동체의 맥락이 아니면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공동체의 맥락이 아니면 내가 오래 참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선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 공동체의 맥락이 아니면 나 자신에게만 나타내는가? 공동체의 맥락이 아니면 내가 나 자신에게만 온유함이나 온유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관계에 관한 것이고 바울은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사람은 징계를 받았고, 이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범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지만,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매우 확신합니다. 알다시피, 바울의 말은 그가 개인적으로 불쾌감을 느꼈고, 아마도 교회 앞에서 그의 사도적 권위에 공개적으로 도전한 사람에 의해 불쾌감을 느꼈음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교회에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고,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디도의 보고와 바울의 현재 서신은 교회가 바울의 지시에 호의적으로 반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가 슬픔에 압도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그에게 사랑을 확증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교회는 용서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반영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여 용서를 경험하도록 할 모든 권리를 잃었습니다. 회개한 범죄자에게 용서를 베풀 수 없다면, 우리는 거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은 중요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이유를 쓴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즉, 여러분이 지나친 슬픔에 압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그들의 복종에 대한 시험이었고, 이 장의 서론에서 말했듯이 저는 규율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섹션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요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1세기 기독교 공동체의 규율은, 회중이 거의 없었던 도시의 규율과, 특히 서구의 거리 구석구석에 회중이 있는 현대 사회의 규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테네시주 클리블랜드에 살고 있는데, 여기 인구는 아마 4만에서 5만 명 사이일 겁니다. 그리고 도시에 3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을 겁니다. 대략 4만에서 5만 300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교회, 다른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52개 교회를 다니게 되고, 클리블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니려면 6년이 걸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피해 도망치면 빌립보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도망치면 고린도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도망치면 같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특정 구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규율은 교회의 건강에 필요합니다. 교회의 건강에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가 죄를 지은 회원을 징계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이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불쾌한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 항상 더 쉽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용서와 회복은 회개하는 형제 자매에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징계가 이루어지고, 가해자가 죄를 회개하면, 교회도 기꺼이 그리고 재빨리 그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들어보세요, 교회는 지역 사회에서 용서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 과거의 죄를 상기시키고 그들을 교회의 2등으로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교회의 삶과 사역에 유용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하시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제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용서하는 사람은 누구든 용서한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또 다른 교훈을 배우세요.

바울은, 여러분이 용서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의 용서와 고린도인의 용서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간단히 "나는 그를 용서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를 다시 데려가세요.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했으니, 당신이 그를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회중의 일원임을 압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권위를 행사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5-1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권위와 겸손. 겸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는 멋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초기 기독교에서는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겸손하면 척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미덕으로 만든 것은 기독교인이지만,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겸손으로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뭔가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악의적인 계획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정확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글썄요, 아마 우리가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이 사람이 낙담하고 우울해져서 더 이상 교회에 오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사탄이 이용하고, 왕국의 일원은 아마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적대자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걸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인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회중이 느끼는 슬픔을 이해합니다. 아시다시피, 불행히도 교회는 때때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걸렸을 때, 저는 그들에게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기독교적 태도가 아니야. 우리는 그에게 말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건 기독교적 태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당신이 그에게 말했고 그가 여전히 그렇게 했지만, 당신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옳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자로서 당신이 원하는 옳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인이 슬퍼할 때 교구민이 느끼는 슬픔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진심으로 슬픔을 느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한 번 사랑해서 공동체로 돌려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종의 시험이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공동체로 돌려보내는 것은 순종의 시험이 됩니다.

우리는 형제나 자매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동체의 거룩함입니다. 가해자의 회복으로서의 거룩함.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10절은 이 범죄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적어도 명확하게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절을 살펴보세요.

당신이 용서하는 사람은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한 것은, 만약 내가 용서한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울이나 그의 위임된 대표자에 대한 개인적인 뻔뻔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서하고 떠나자고 말합니다. 용서는 흥미로운 일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증인으로 바라보셨듯이, 우리는 승인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용서를 합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용서의 조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3~25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 용서.

제 말은,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할 수 없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것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불화를 조성하고자 했던 전략의 거장인 사탄의 손에 놀아나게 됩니다. 교회 전체와 반체제 소수자 사이, 또는 회개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그의 동료 그리스도인 사이.

따라서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사탄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미 한 가지 이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순전히 보복적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고통스러운 처벌은 누군가를 절망으로 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징계는 분명히 필요할 때 처벌을 포함하지만 사랑으로 집행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보복적이거나 처벌적인 것은 시정적이거나 개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인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 회개 후 복직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2장으로 갑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트로아스로의 여행을 계속합니다 .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트로아스에 왔을 때, 주 안에서 문이 열렸지만, 내 마음은 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 형제 디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이제 이 두 구절은 마지막 부분에 이르는데,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의 행실을 설명합니다. 이 엄중한 편지로 이어진 사건을 재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디도는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보내졌고 바울은 에베소와 그 주변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 지방에 조금 더 머물렀는데, 고통스러운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도시입니다. 바울은 트로아스로 떠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사도행전 19장에서 데메트리오스가 폭동을 선동한 데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디도를 고린도로 보낼 때 트로아스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도시를 떠날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빌립보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트로아스에서 전도했다고 안전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12절은 그의 의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만, 그는 주님께서 주신 전도의 기회를 붙잡은 후에야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트로아스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트로아스에서 전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트로아스에 들렀고 환영을 받았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했고, 그는 자신의 영 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떠났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과정의 첫 번째 서론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가 다른 어떤 책보다 바울의 인간성을 사람으로서,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세울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디도 때문에 내 영에 안식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디도가 돌아오지 않았고 고린도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들은 그를 거부할 것인가? 그들은 그에게 뭔가 잘못을 저지를 것인가? 그는 내 영혼에 휴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누군가가 당신의 자식이 아닐 때, 심부름을 시켜서 메시지를 보내서 오늘 밤 돌아와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아이가 아닐 때, 당신은 그 사람을 심부름에 보내고 반드시 오늘 밤 돌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아이일 때, 당신은 "음, 이제 가겠습니다. 어두우면 머물러서 내일 오세요."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룻밤을 묵고 내일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어두워도 상관없어, 오늘 밤 와. 하지만 당신의 아이라면, 어두워지면, 당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잠자리 파티, 내일 와. 두 가지의 차이를 알 수 있나요? 풀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십일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영에 안식을 찾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을 제공합니다. NRSV에서 번역한 대로 바울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쉴 수 없었다. 즉, 그는 고린도의 영적 자녀들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에서 그의 영 안에서 안도감을 찾지 못했다. 참으로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고린도인들을 품고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파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영 안에서 너무 불안해서 그의 봉사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고린도인과 디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그의 권위를 거부할까요, 아니면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쓴 대로 할까요? 바울은 얼마나 참된 목사였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살핌을 맡기셨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것이 좋은 목사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목회서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모든 목사는 그런 사랑과 관심에 의해

제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역을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역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럼 사역이란 무엇인가? 의자와 마이크? 사역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잠언 25장 25절에 목마른 영혼에게 차가운 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온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디도의 보고는 좋았어요.

14절,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승리의 행렬로 인도하시고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향기를 우리를 통해 퍼뜨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과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임이니라. 디도가 그에게 전한 복음은 찬양의 폭발을 불러일으켰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는 자신의 사역을 승리한 장군의 승리 행렬에 이끌리는 포로의 사역과 비유적으로 비교합니다. 이제 학자들은 여기서 누가 인도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로가 바울인가? 그리고 꽤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하지만 바울이 장군이 앞서 가는 로마의 승전 퍼레이드의 그래픽한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는 자신을 승리한 장군의 군인으로서 그의 승전을 공유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바울에게 있어서 신은 행렬의 선두에 있는 승리한 장군이였다.

바울은 도달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발했습니다. 그런 다음 16절에서 그는 자신의 사역을 비유하고 그러한 행렬 중에 공기를 가득 채운 향기에 자신의 사역을 비교합니다. 복음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이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향기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복음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거나 보여줍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특정 향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누군가, 친척 또는 이웃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가서 오 예, 이모님이 여기 계신 이유는 그녀가 독특한 향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순간.

알잖아. 이모님 여기 계셔. 보이지 않아도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의 향기는 깨진 기름 상자의 설화석고에서처럼 회사로 퍼진다. 나는 오 예, 이모님, 하고 말한다. 당신은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녀는 모퉁이를 돌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에 있어서 특정 향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향수입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이것은 화장품 매장에서 살 수 없고 교회에서 팔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일어나며 오직 그리스도와와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일어납니다. 매우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항상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와와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일어나며, 물론 미묘하지만 눈에 띄게 일어납니다. 저는 불타는 플레처라고 불렀던 존 플레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존 플레처, 위대한 거룩함 설교자.

어느 날 그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린 예수님의 한 점이 길을 가다가 존 플레처를 오해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겸손, 향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향을 퍼뜨리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 작은 마을의 한 크리스천에 대해 말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봐. 그 사람은 내가 나아지지 않고는 절대 내 길을 건너지 않아.

그 남자는 내가 더 나아지지 않고는 결코 내 길을 건너지 않는다. 즉, 이 남자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가 나 에게 말할 때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같은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손을 흔들기만 하면 그가 신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손을 흔들기만 하면 그가 신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증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역인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한 승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승리. 바울이 이런 일에 누가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도 당연합니다. 이런 일에 누가 충분한가? 15절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과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

한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으로 가는 향기이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향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누가 이런 일에 충분하냐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들어보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바울의 은혜에 대한 견해는 매우 강력합니다. 바울에게 은혜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은혜를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무책임한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인지 무책임한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책임한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돕고,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강화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신의 향기가 없이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은 우리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말합니다. 누가 이런 일에 충분할까요? 누가 이 일에 합당할까요?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일.

나중에 말할 것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메시지의 행상인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가 자신의 자원에 의존한다면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3장에서 또 다른 답이 나올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원에 의존한다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17절을 보세요.

여기서 그는 17절에서, 우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상하는 많은 행상인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성실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당신은 행상인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교통 체증이 있을 때 물건을 팔러 다닙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볼 수 있죠.

필리핀 마닐라 거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이 막히면 행상인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달리고, 당신이 사기를 원합니다. 폴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랑하는 교사와 철학자를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1세기에 방랑하는 교사와 철학자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냉소주의자입니다.

그들은 그냥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합니다.

어떤 사람들. 아니면 적대자들일 수도 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래서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기의 진실성에 호소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기의 진실성과 메시지의 순수성에 호소합니다 .

이제 뭔가를 얻었어요. 동기와 메시지. 메시지와 동기는 함께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을 전파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한다. 사역에 대한 동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3장에 도달했을 때 살펴볼 진정한 사역의 표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상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상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실한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하죠. 바울은 성실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걸 기억하세요? 그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2장에서 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규율에 대해 배웠습니다 . 우리는 용서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목회적 민감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을 대하는 방법과 징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대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립은 때때로 필요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복음의 목사이자 크리스천 워커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동기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가 회복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람들을 빨리 쫓아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병든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들이 치유를 찾고, 용서를 찾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병든 사람들을 환자라고 부르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심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그게 우리가 그들을 환자라고 부르는 이유일 겁니다. 그들에게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인내심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들을 참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구할 때와 같은 일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회복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아요 아데우야 박사 가 한 말입니다 . 이것은 세션 3, 고린도후서 2장, 바울의 변호입니다.